대전일보 1992. 2. 21

金曜칼럼

宋相現

國際化시대와 전문가의 활용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분단국가로서 우물안 개구리같이 살던 때와는 달리 최근 몇년간 급속한 국제화와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선 손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대비했더라면 많은 분야에서 허둥댈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참으로 눈에 많이 뜨인다.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이 해외유학도 하고 국내외적 경험도 많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찾으면 태부족한 것이 우리가 험난한 국제사회를 헤쳐나감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고 위태로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과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중요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속출하는데 그동안 안이한 태도로 관료적 응급처치만을 해온 정부는 물론, 시류에 민감하고 財테크니 정치열기에 휩쓸려 세월을 보내온 민간부문에서도 이에 대처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없어서 쩔쩔맨다. 예컨대 우루과이 라운드의 통상협상을 보더라도 국제회의의 현장이나 정부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마땅한 전문가의 부재를 한탄할 뿐 우왕좌왕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노라면 남북합의서가 발효되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많은 북한전문가가 필요하고 핵전문가들이 중요한 활약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와같은 중요인재를 과연 얼마나 양성했을까. 이러한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어디 각 분야의 전문가뿐이겠는가. 생활필수품이야 모자라면 엄청난 양을 신속히 수입하여 4천만의 매점매석에 대응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상품처럼 금방 수입해다가 써먹을 수도 없는 일이다. 금년중에 개최되는 유엔환경회의에도 환경문제전문가가 없다고 하여 어디서 수입해다가 파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전문가의 양성을 소홀히 했고 이미 길러내어 확보한 전문가도 관리하고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전반적인 인력수급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 인재양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온 점은 정부가 먼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각 부처에서 공무원에게 장기해외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젊은 공무원을 보내는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제약이 많은 반면에 중견이상을 파견하는 경우는 해외에 자리 한개를 증설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잘못 이용되면서 파견자는 별 연구와 경험을 쌓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된다. 요컨대 아까운 외화를 들여 인재를 양성하려는 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무성격상 계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도 획일적으로 단기간 순환보직제를 적용하는 결과 전문가의 배출은 고사하고 기본업무의 계속성조차 유지되지 못한다. 또한 온갖 비난속에서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정부출연 연구소를 보면 인들이 우선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 경직된 관료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잘 대처해온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각 연구소가 점점 주무부처의 관료적 통제에 묶여서 그 시녀로 전락하는가 하면 비슷한 연구소끼리 중복적 과당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극심하다.

이같은 준비안된 환경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국내외에서 고등교육과 경험을 쌓은 후 자기분야에서 천직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찾아내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있는 전문가도 입바른 소리를 자꾸하는 사람이면 비협력적이라고 배제하여 버리고 외국의 대가를 초빙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분야별 전문가의 풀이 없고 자료가 없는 만큼 외국의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지 잘 알리가 없건만 많은 외화를 들여 자격과 전문적 연관성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초청해다가 후하게 대접하고 신문에 인터뷰기사를 내준다. 이는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뿌리깊게 박혀있는 안이하고도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나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특정한 국내전문가와 협력하다가 엉뚱한 오해를 받는 일도 없고 때로는 윗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기까지도 한다. 심지어는 관계분야의 권위자를 찾아 몇번의 도움말을 받고는 마침내 스스로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관료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연줄을 통하여 관계부처와 결탁한 채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사이비들도 없지 않다.

각 부처마다 2000년대를 앞에 두고 장단기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지금부터라도 특별히 연구할 분야를 지정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일방 국내외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확보하여 응분의 대우를 함은 물론 상시적 협력체제와 자유로운 연구분위기를 보장하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문가의 시대는 이미 우리앞에 도래하였다.

<서울대 法大 교수>

「이」軍 레바논 進擊 各國반응

유엔·英 "즉각撤軍"·美 "자제"촉구

이집트, 侵略규정 레바논支援 다짐

서방국가들은 20일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을 침공한 처사를 개탄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등 中東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짓고 레바논의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한 한편 유엔은 남부 레바논의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지구에 침입한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앞세워 親이란 헤즈볼라 민병대원들을 추격하여 레바논주둔 유엔 暫定軍(UNIFIL)이 배치된 지역에 침입한데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유엔군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갈리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마라크 굴딩 유엔평화유지활동 담당 사무차장에게 유엔측 항의를 전달하고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태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유엔대사는 이스라엘군의 남부 레바논 침공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인지 본국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서방국가 중에서도 영국은 남부 레바논에 진격해 들어간 이스라엘군 부대들에게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정부는 이번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의 폭력사태가 내주 워싱턴에서 있을 중동평화회담의 재개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 스미스 백악관대변인과 마거릿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은 최근 중동에서 폭력사태가 증대하고 있는 사태를 염려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중동국가중 이집트 정부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침략」에 분격하고 있다고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 오스마 알 바즈가 말했다.

【뉴욕·카이로AP AFP=聯合】

이스라

탱크 30여대

全面戰 가능성「이스라엘 「보안지역」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紀律검사를 실시, 부정부패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肅正할 것이라고 홍콩의 臺灣系 신문인 星島日報가 20일 보도했다.

星島日報는 黨紀律檢査委員會의 「기밀문건」을 인용, 『黨紀委는 오는 7월1 … 전면적인 … 을 실시, 각급 당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청렴결백한 정치문제와 특히 경제분야의 기율위반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 정치기율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清理整 … 과 도박, 매음, 마약등 사회악과 관련된 이권개입, 관료주의, 경제및 재정기율과 … 부패 관련행위를 일소하고 새로운 당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메-아제르 전격 休戰합의

【모스크바AP로이터=聯合】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20일 지난4년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아제르바이잔내 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주의 영토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라피 호바니시안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 후사인 아가 사디코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이날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의 중재로 모스크바에서 열린회담이 끝난뒤 공동성명을 발표,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구호물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차단된 도로와 통신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CIS는 과도기구 결국 解體될 것"

옐친 보좌관

【모스크바로이터=聯合】독립국가연합(CIS)은 舊蘇연방 붕괴과정의 과도적 체제에 불과하며 결국은 해체될것이라고 갈리나 스타로보이토바 러시아연방 대통령보좌관이 20일 말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민족및 종족문제담당 수석보좌관인 그녀는 CIS가 舊蘇聯이 해체되면서 각 공화국들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춘 독립국으로 새로 탄생하는 과도적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궁극적으로는 CIS도 해체돼 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될 것이라고 스타로보이토바 보좌관은 전망했다.

그녀는 『CIS는 탈옥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하나의 쇠사슬에 몸이 묶여있는 죄수들이 맺은 신사협정』이라고 비유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종족분규에 언급, 카프카스산맥지역 일원의 유혈분쟁이

… 사진게재 계획에 불만을 전달해옴으로써 오히려 게재방침을 굳혔다고 설명. 【뉴욕AP=聯合】

포르노議員 그림 "외설"

★런던지하철 게재 금지

런던 지하철당국은 20일 이탈리아 포르노 스타이자 전직 의원인 라 치치올리나가 남편과 함께 발가벗은채 침대에 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켰다고.

「쿤스와 함께 집에서」라는 제목이 붙은 이 포스터는 미국출신 화가로 치치올리나의 남편인 제프 쿤스가 21일 런던의 헤이워드 화랑에서 개최될 한 현대미술전시회를 광고하기 위해 그린 것이라고.

한편 치치올리나 부부는 이날 자신들이 키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런던 히드루공항으로 들어오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애완견을 검역소에 맡겨둔다는데 동의한뒤 풀려났다고. 【런던AFP=聯合】